



창극 심청에 눈뜨다

전남도립국악단, 2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 토요 기획공연 '창극 심청'이 오는 22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무대에 오른다. '창극 심청'은 판소리 심청가를 창극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국립국악단원 80여명이 출연해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황후가 돼 부녀가 상봉하기까지의 과정을 2부로 나눠 담아낸다. 공연시간은 90분이다.

국악단원은 전통 창극 외에도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 '판소리 이수신' 등 남도의 역사인물을 활용한 브랜드 공연을 매주 토요 기획공연으로 선보이고 있다.

관람료는 일반 7000원, 대학생 5000원, 초·중·고생 3000원이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문의 061-280-5824.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마리, 사랑을 택하다

광주극장 '마리 크뢰이어' 상영... 24일 김승환 교수 강연

화가 P.S. 크뢰이어는 고흐, 고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19세기 유럽의 화가다. 그의 뮤즈이자 아내, 예술적 동반자였던 '마리'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마리 크뢰이어' 상영과 아트북 행사가 열린다.

광주극장은 오는 24일 오후 7시20분 '마리 크뢰이어' 상영 후 밤 9시부터 아트북 'P.S. 크뢰이어의 삶과 예술'을 진행한다. 강사는 조선대 미술학부(시각문화학부) 김승환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거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대미술학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영화는 유명 예술가의 아내로 세상의 동경을 받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택한 여인 '마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복자 펠레' '최선의 의도'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2회 수상한 빌 어거스트의 신작이다. 문의 062-224-5858, 062-225-88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인 원탁회의 논의·시민의견 수렴 입지 선정해야

원점으로 돌아간 빛고을문화관 부지... 해법은

새 추진위 구성... 명칭부터 콘텐츠까지 투명하게 용아·다형 등 문학 혼 담긴 공간에 건립 주장도

빛고을 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9일 건립부지 선정건을 백지화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와 문인들의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추진위는 해체하고 새로운 추진체를 구성해 명칭뿐 아니라 부지선정, 콘텐츠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부지선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시의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과정에서는 다소 늦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 선정과 관련된 단 한 차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점 등 시의 소통 부재 행정이 되풀이 되

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광주문인협회(이하 문인협회)는 "새로운 추진체는 향후 콘텐츠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추진위를 보완하든 해체하든 어떤 식으로든 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추진위 인사 가운데 무게감 있는 문학계 인사가 거의 없다는 비판과 맞물리는 대목으로, 향후 추진체에 중량감있는 문학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문화관 건립 부지 또한 동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후보지를 폭넓게 모색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는 사유지로 할 것인지 국유지로 할 것인지 미리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방향에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문학인의 혼이 서려있는 공간에 문화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은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박용철 생가.

일부에서는 용아 박용철 생가 등 지역 문학인의 혼이 서려 있는 공간에 문화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두야 간다'의 박용철은 광산구 소촌동에 고향이고 김현승은 비록 출생지는 평양이지만 양림동의 언덕과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심을 키웠다.

문인협회는 동구의 히딩크 호텔과 명성예식장 부지는 문화관 건립 장소로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인협회는 "빛고을문화관은 대전문화관처럼

공원을 끼고 있고 주차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주변 경관이 좋은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형 김현승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손광은(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시인은 "용아와 다형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기 때문에 생가 인근에 건립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문학인과 연관이 없는 장소에 건립된 문화관은 향후 시민들의 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

던 대전문화관의 사례는 향후 빛고을 문화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문화관은 지난 2010년 말 34억 7100만원을 들여 문화관을 설립했지만 운영비와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 2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야 간신히 업무를 시작했다.

빛고을 문화관은 부지 선정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 주차장 등 다양한 면에서 철저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기자 skypark@

“30년 광주생활 좋은 인연 만나 행복했습니다”

이형석 교수 정년기념콘서트, 24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린은 인생... 낮은 곳에서 재능 베풀고 싶다”

31년만에 광주를 떠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64·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는 만감이 교차한듯했다.

대전 출신으로 아무 연고도 없던 광주에 정착한 게 지난 1982년. 서울대를 거쳐 서울시향 등에서 활동했던 그는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친 뒤 서울이 아닌, 광주시향 악장을 맡아 광주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전남대 교수로 부임해 30년간 후학들을 가르쳤고 정년을 1년 앞둔 여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 3년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이제야 결심을 했네요. 좋은 후배들을 위해 물러날 때가 된 거죠. 요즘에 참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많아요. 제가 떠난 자리에 좋은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는 광주는 자신에게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무엇보다 광

주에서 만난 많은 인연들을 놓고는 게 아쉽다고 했다.

“안식년 등으로 외국에 나가있던 3년 빼고는 광주를 떠난 적이 없으니 고향이나 다름없죠. 특히 처음 정착했던 양림동을 떠나는 게 많이 서운합니다. 전남대 캠퍼스가 참 아름다운데, 교정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이 거닐면서 많은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광주도 가끔 오겠지만 자주 만났던 이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테니 그건 많이 아쉽구요.”

이 교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1997년 '모나무리 실내악단' 창단을 들었다. 이 교수는 조지 욱토스, 클라리브 등 벨기에의 유명 지휘자와 연주자를 초청해 함께 연주했다. 10년 동안 그들은 항상 이 교수의 집엔 머물며 음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을 쌓아왔다.



“후배들, 제자들과 실내악단을 만들고 외국에 좋은 연주자들을 초청해 함께 연주하며 느꼈던 행복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힘인 것 같아요. 단원들이 그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음악 인생에서 변화를 느꼈다고 할 때 뿌듯함도 있었구요.”

이 교수는 광주 1호 거리가 아바

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인 아들 이경민(38)씨를 9살 때 벨기에로 유학 보내고, 7년 동안 혼자 생활했다. 경민씨는 올 가을 광주 금호아트홀에서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오는 24일(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열리는 정년 기념 콘서트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로망스 G장조',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등 소품들로 꾸렸다. 피아노 반주는 호남신학대 구재학 교수가 맡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대전의 한 공연장에서 계성식 선생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보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그 때 나를 음악으로 이끌었던 소품들처럼 마지막 연주회는 청중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에서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물론 바이올린은 늘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신앙인으로 낮은 곳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베풀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시조의 시대정신’

21~22일 민해축전 학술세미나

오늘의시조시인회의(의장 이지엽)가 2013년 민해축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현대 시조의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 피렌체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현대시를 담아낸 작품을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와 시조의 건강성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경철 문학평론가가 기초발제자로 나서 ‘현대시조의 실감(實感)과 실정(실정)을 위한 고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남규 고려대 강사가 ‘개화기 시조의 근대적 주제’를, 박봉우 문학평론가가 ‘현대시조와 시대정신의 미적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또한 이송희 전남대 강사와 황치복 평론가가 ‘현대시조에 나타난 민중정신’,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시조의 대응력’을 주제로 각각 시조의 생명력을 고찰할 예정이다. 문의 010-6704-390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